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이경규 “영화는 내 운명, 영원히 가져가고파”

내달 1일 개봉 '전국노래자랑' 제작... 사회사 손해 특별 출연

“끝없이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줄을 잡고 질질 끌러가더라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하면 뭐가 돼요.” 국내 방송계에서 개그맨이자 진행자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경규(53·사진).

그는 사람 냄새 나는 아날로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고된 소재가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다. “아날로그적이고 30년도 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오래된 프로를 영화화하는 경우는 처음이니까 신선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전국노래자랑을 본 관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대단한 거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영화를 다 보면 좋을 텐데(웃음).”



“그래서 영화를 설립했죠. ‘인앤인퍼처스’라고. 한자에는 사람인(人)도 있지만 참을인(忍)도 있어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영화를 두 개 했는데 그레도 인쇄하면서 계속 살아왔어요. 이런 영원히 가져가고 싶어요.” 그는 사람 냄새 나는 아날로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아날로그적이고 30년도 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오래된 프로를 영화화하는 경우는 처음이니까 신선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전국노래자랑을 본 관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대단한 거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영화를 다 보면 좋을 텐데(웃음).”

영화에는 ‘전국노래자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사 손해도 특별 출연한다. 제작자인 그가 직접 찾아가 부탁했다. ‘전국노래자랑’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도 그의 마음을 끌었다.

“우리 영화에 들어 있는 건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창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걸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꽃단장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에 오르면 2~3분 정도는 실컷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받고 내려앉았어요. 사소한,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첫 영화 ‘복수혈전’을 연출한 뒤 ‘복면달호’부터 제작으로 방향을 튼 그는 이번 영화 역시 시나리오 기획과 제작자 역할에만 몰두했다. 연출은 신인 이종필 감독을 기용했고 촬영 현장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한 감독이 많는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감각으로 하기에는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좀 더 공부해서 해야죠. 몇 년 더 있다가 조금씩으로 붙어서 제대로 한 번 해보려고요.” 그가 담고 싶은 사람은 할리우드의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다. B급 서부영화의 액션 배우로 시작해 한 편 한 편씩 영화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 된 과정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including '건강한 아침', '한국기행', '도전! 직업체험', etc.

Table with 2 columns: EBS플러스1 and EBS플러스2. Lists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조용필 19집 ‘헬로’ 2만장 돌파

음반 판매 이어 전국 투어 공연 예매 1위 달성

조용필(사진)의 19집 ‘헬로’(Hello)의 첫 주문 물량이 2만 장을 넘었다고 소속사인 YPC프로그래밍이 22일 밝혔다. 조용필의 음반 유통사인 유니버설뮤직코리아는 소속사를 통해 “조용필의 새 음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 도·소매상에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사전 제작해둔 물량 2만장이 한 번에 출고됐다”며 “추가 물량 제작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차트 정상에 오르며 음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기 때문이다. 소속사는 “19집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가치를 창출한 리브랜딩의 사례로 제시되며 기업체들의 단체 구매가 쇄도하고 있어 앨범 판매량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집에는 발라드와 로큰롤,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10곡이 수록됐다. 조용필은 오는 23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프리미어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 달 31일~6월 2일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콘서트에 나선다. 앨범의 인기로 힘입어 공연도 인터파크 예매순위 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showing horoscopes for different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with birth dates and corresponding fortunes.

TV 하이라이트

1인 vs 100인 막강 퀴즈 대결



1대 100(KBS2 TV·오후 8시50분)= 최후의 1인을 향한 서바이벌 두뇌게임 대한민국 대표 퀴즈쇼 '1대 100'. 이번 주에는 1인 도전자로 결혼 자금 마련에 도전하는 꽃미남의 세신강 김현철씨와 떠오르는 연예계 다재다능 완소 심글남 서인국(사진)씨가 나선다. 1인에 맞서는 100인 군단은 막강하지만 하다. 증권인 모임 ‘응답하라 코스피’, ‘MC 스티비아와 삼골도적단’, 경북 영양군 공중보건의 ‘마을만은 텃밭사’, 5월의 신랑신부들 ‘빛썰매’, 연예인 야구단 ‘외인구단’, 연예인 퀴즈군단 ‘허준’ 등의 단체 참가자와 흥진영, 정성근, 일렉트릭 보이즈 등이 1인을 상대한다. 68인의 예심 통과자들이 함께 하는 불꽃 튀는 승부도 기대된다.

사천으로 떠나는 삼국지 여행



세계테마기행 ‘삼국지 축한의 땅 사천’ 2부 (EBS TV·오후 8시50분)= 사천은 중국 역사가 낳은 세기의 명작, 삼국지의 위촉으로 중유비가 세운 나라인 축한의 주무대가 되는 곳이다. 2부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에서는 중국의 4대 고성 중 하나인 남중을 소개한다. 축의 무장 장비가 장렬히 최후를 맞았고 전해지는 자리에 세워진 그의 사람과 거대한 분묘는 여전히 여행객들의 발길을 끊지 않는다. 축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 천리 잔도로 유명한 명월함(明月峽)과 깎아지른 듯한 협곡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위촉의 주요인장이자 축한의 마지막 보루였던 검문관(劍門關). 함께 천하를 호령했던 무장 감유서의 묘가 슬슬히 일행을 맞는다.

부산 대변항 봄 멀치 맛보기



관촬카메라 24시간 ‘바다와의 사투, 멀치를 털어라!’(채널A TV·밤 11시)= 부산 가장군에 위치한 대변항은 전국 유자망 멀치 어업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3~5월이면 알을 뱉는 봄 멀치가 제철이다. 그 소문 듣고 방방곡곡에서 찾아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다. 너도 나도 멀치를 찾으니 어부와 상인들은 밥맛없는 멀치야리 정장은 잔잔한 잔잔이다. 대변항 멀치는 크기부터 자이언트 급이다. 이맘때 아니면 맛보기 힘들다는 생멸치 요리를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난전 앞에 늘어난 멀치요리 식당으로 향하는데, 줄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북새통이다. 관촬카메라, 이 좋은 구경에 빠질 수 없다! 일 년에 딱 한때, 이맘때만 맛보는 봄 멀치로 시골벽직한 대변항의 24시간을 관촬한다.